



두채 부문 [신지식농업인] 도진호 씨



허상만 농림부장관에게 올해의 신지식농업인 표창을 받고 있는 두채 부문 [신지식농업인] 도진호 씨

2004 신지식농업인 24명 선발

농림부는 3월 5일 신지식농업을 통해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혁신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경남 김해 도진호 씨(콩나물 재배)와 24명을 올해의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 발표했다.

총 112명의 후보자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전문가평가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정예의 신지식농업인 선정하여 이번까지 9차례에 걸쳐 173명을 선발하였다. 분야별로는 경종 13명, 과수 26, 채

소 27, 특작 26, 화훼 28, 축산 36, 기타 17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억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신지식농업인이 배출됨으로써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앞서가는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하면 우리 농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채 부문 신지식농업인 지식기술 현황

▶ 인적사항

성 명 : 도 진 호(60년생, 콩나물 재배)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214-1

전 화 : 055-345-6931

▶ 경영현황

재배면적 100평, 저온창고 25평, 포장실 30평, 환원순환시스템 5평

<표> 경영현황표

(단위 : 백만원)

연간조수입	경영비	농업소득	농외소득
600	540	60	-



농업부문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혁신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신지식농업인]에 경남 김해 도진호 씨(콩나물 재배)가 선정되었다.

■ 주요 아이디어 및 내용

콩나물의 외관이 좋을 뿐만 아니라 무농약 청정생산된 콩나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를 반영하고, 콩나물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방안의 연구로 ‘활성순환농법’을 개발하였다. 여분의 콩나물을 저온열분해 탄화장치(환원순환기계)에 처리, ‘수액’과 ‘탄화물’을 채취하여 혼합관주함으로써 품질향상을 꾀하였다.

분석결과 비타민C가 기존의 관행재배보다 약 5배 이상 높고, 칼슘, 인 등의 성분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콩나물 재배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발아율을 수액관주로 96%까지 향상(관행 80%)시켜 15% 정도의 원료콩 절약 및 재배기간을 단축(2~3일)했으며 소비자 인정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실현했다.

한편 [환원순환에 의한 콩나물 재배방법] 기술 관련 특허등록(제0362874호)을 추진 중이며 경상남도 추천상품 Q·C마크(제0201081호)를 획득했다. 또한 정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농산물 무농약사용신고농가(제17-07-3-04)로 등록하였다.

현재는 칼슘이나 게르마늄 등이 함유된 기능성 콩나물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 중이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올해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에게 명예와 인증의 의미가 담긴 「신지식농업인장」을 수여하고 신지식농업인들이 한국농업의 CEO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우리농업을 경쟁력 있는 자식기반농업으로 선도해 가는 주역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체 신지식농업인 173명으로 증가

그밖에 경기도 가평군에서 벼섯 생산을 하는 양영국(38세)씨는 석사(균학) 출신으로 1998년 귀농하여 본인이 습득한 고부가가치 연구결과를 영농현장에 접목하여 지금까지 농가생산이 어렵던 벼섯원종생산 기술을 개발, 벼섯재배의 단계별 분업화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 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농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견조누에를 이용한 누에동충하초 인공재배법」, 「저콜레스테롤 기능성 홍국쌀의 원료성분



(모나콜린-K)」의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하는 등 특작분야 신지식농업인으로서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앞으로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수입농산물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들처럼 장인정신을 갖고 자신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신지식농업 인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농림부는 선정된 신지식농업인에게는 농신보보증한도 확대(1억→2억)와 선진농업 견학 기회부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다른 농업인과 농과계 학생들의 신지식인화를 돋기 위해 「신지식농업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지식농업인의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현장체험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2002년에 정식 출범한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가 주축이 되어 21C 지식농업을 이끌어 가도록 신지식농업인과 농업인간에 정보교류의 장인 「신지식농업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농업지식·기술의 공유·확산을 주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올해 선발

된 신지식농업인에게 명예와 인증의 의미가 담긴 「신지식농업인章」을 수여하고 지식·기술·정보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농업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지식농업인들이 한국농업의 CEO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우리농업을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농업으로 선도해 가는 주역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❸